

잊지 못할 선물

40년 전 그 날의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역촌동 서부시립병원 아래 연립 주택에 살고 있었다.

시립 병원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거나 환자의 배우자들이었다. 서부 시립 병원은 생활이 빈곤한 폐결핵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곳이었다.

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성도들 대부분이 진심어린 걱정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만류했다. 당연히 목사님께서 “우리교회의 사정을 잘 모르고 나오셨군요. 우리 교회는 폐결핵 환자들 교회이니 전염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로 출석하세요. 더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면 절대 안됩니다.”

나는 그 곳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만류에도 계속 출석했다. 점차 성도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하고 젊은 성도 한 명이 어두운 교회를 밝게 해줘서 우리 교회가 폐결핵 환자들의 교회라는 것을 잊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입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들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니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은 내가 일반 교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핍박하던 때였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쩌나 가슴 졸이며 교회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전날 남편은 나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거야.”라며 큰소리를 쳤다.

결혼 전에 보석을 다루었던 남편은 내가 보석을 싫어 한다는 것을 모르고 몇 번 보석을 선물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보석도 싫다. 돈도 싫다. 도대체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뭐야?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그 날 밤. 늦은 시간이 다 되어도 남편은 선물 이야기가 없었다. 내심 기대했지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남편에게 보채기도 싫어서 교회로 향했다.

예배드리는 앞 정면에 굴, 사과, 내의 박스가 가득 쌓여져 있었다.

나는 누군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굴과 사과, 여러분들이 추위를 잘 견디시게 하도록 따뜻한 내의를 선물

하신 분은 유정옥 성도님이십니다.”

나는 놀라서 목사님을 향해 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유정옥 성도님의 심부름이라면서 남편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정옥 성도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드립니다.”

성도들은 감격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시작했고 그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고 된다더니 그 성도들의 기도의 힘은 가히 엄청난 것일까 남편은 그들이 기도한 지 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듬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다.

남편과 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익숙한 습관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첫 목회임지를 뇌성마비 환자들 교회에서 그들을 섬겼다. 장애자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후 고무 튜브를 끼고 시장이나 큰길에서 수세미, 좁약...등을 팔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 가족으로 살았다.

나는 2004년부터 노숙자들 곁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며 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실종되게 했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지고 홀로 따로따로의 세상이 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 올리며 서로 선물을 준비하던 크리스마스까지 실종된 것이다.

그 다음해 2021년 크리스마스는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노숙자들에게 방한복, 내의, 마후라, 장갑, 양말, 우의, 핫팩...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는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한 노숙자가 “사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고 하자 노숙자 전원이 박수를 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1:23)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2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자를 섬기며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11년 동안 암 환우들을 섬기며 치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글 / 유정옥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한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때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단점과 부족함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부부의 연은 스스로 정한 일입니다. 천륜은 선택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죽도록 미운 사람으로 평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형제 지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

저는 이 말씀을 '제자의 삶의 3종 세트'라고 종종 설교 때 말하곤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돌봄의 삶을 특수 사역으로만 생각하다가, 최근 어머니가 육고를 치르는 상황에 놓이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뭐하겠습니까? 자기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매일 사랑하라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정작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도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참 친한 벗 중에 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근육병으로 인해 소아 때부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명문 대학교를 나오시고 참 예쁘시고 지혜로운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생 아들의 병상 옆을 지켜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옥에 가신 뒤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가 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권사입니다. 어머니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안부를 서로 나눴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대화를 끝낼 즈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니를 찾아갈 수는 없을 듯합니다. 지금 아들의 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늘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이분과의 짧은 전화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강인한 여성의 목소리,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 친한 벗을 향한 걱정과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머리 밑으로는 전혀 가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우리나라 명문 대학교를 잘 졸업하게 하고 박사학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살아갔다면 여성 리더로서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겠지만, 사랑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생을 헌신한 이런 거대한 인생을 살았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하며 때로는 참 안타까운 환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 환우님은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현금 봉투의 이름은 본인이 쓰셨습니다. 아마 많이 배우지 못한 연고로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기암 투병하면서 가족들이 한 번도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들이 목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힘든데도, 내 가족이 옥에 갇혔는데도 찾지 않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단한 일은 한 것은 없지만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10년을 쓰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일평생을 써야 하는 삶을 살아간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매일예배



▲ 산책전 기념사진



▲ 성탄예배



▲ 성탄전야공연



▲ 성탄절 예배



▲ 성탄절 예배



▲ 성탄절 예배



▲ 아침제조



▲ 유초등부 성탄절 공연



▲ 유초등부 성탄절 예배후



▲ 캘리그래피 소모임



▲ 캘리그래피 소모임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1. 백O경(매암4기) - 독성항암(도세탁셀) 부작용 부중으로 중단하고 18상 산악 임상연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2. 오O순(매암) -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미안한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3. 임O국(매암4기) - 임파절암(골수암), 위암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8/6일 검사 결과 폐와 암덩어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병안함과 치유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O진(난소암4기, 림프전이) - 영육이 고갈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뇌경색 중증장애인 엄마의 굶고 내려앉은 척추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언니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5. 구O혜(유방암, 뼈전이) - 10/7일 CT 검사 후 10/10일 결과를 봅니다. 첼로다 항암약이 잘 맞는지 확인차 검사인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첼로다 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설사, 손발 물집, 소화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이O옥(유방암, 흉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째 두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 육에 늘 임재하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7. 남O범(위암) - 복막에 전이되어 약을 바꾸었는데 이번 약으로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셔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소서
8. 김O중(골수암) - 날로날로 치유되는 저를 보면서 가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길 믿고 기도합니다.
9. 김O덕(방광암, 복막, 골반전이) - 항상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 재배게 해주시고 암으로 인한 고통, 환난의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성숙되어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0. 김O금(담낭암) -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이된 암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표적 항암으로 담낭암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11. 김O숙(대장암) - 항암 부작용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수면제 먹지 않고도 숙면을 취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소사힐로 인도하신 하나님 퇴소 이후에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듣게 되길 원합니다.
12. 송O수(위암) - 수면제없이도 잠을 잘 자고 체중도 증가되기를 기도합니다. 림프전이 된 것도 깨끗해지고 소사힐에서 재배는 동안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길 하나님을 믿습니다.
13. 조O미(암) - 수술받은 부위가 깨끗이 치료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4. 박O현(위암) - 위 절제 후 호흡기가 좋아지면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게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해복한 주의 재림로 거듭나게 하소서.
15. 정O순(유방암) - 세포독성 치료중에 말, 다리 림프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소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16. 윤O근(췌장암) - 췌장암 활기로 10회 항암치료후 약을 바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새로운 표적항암제로 치료받게 하소서.
17. 장O영(유방암) - 이번 경구용 항암약이 저와 잘 맞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몸에 전이된 암세포들 모두 사멸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깨끗이 치유해 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는 모두 축복 하소서.
18. 서O순(유방암) - 앞으로의 모든 치료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모든 암세포가 내 몸에서 사멸되고 완치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9. 박O혜(자궁육종암) -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려와 근심을 이기고 확신과 믿음으로 질병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20. 박O숙(대장암) -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는 태워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완치받게 받게 하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1. 손O선(홍선암) - 매우 맞는 혈소판 치료에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혈액수치가 정상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22. 정O길(홍선암) - 재발없이 거처를 재배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소서. 우울증이 낫게 하시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2025년 12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병식(100,000)	김종덕(100,000)	사랑교회(101,910)	신은철(2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한재(320,000)						

●목적헌금●

이은광(1,000,000)	조은래(7,128,830)
----------------	----------------

●천사헌금●

이금순(1,000,000)	성안숙(1,000,000)	배정원(1,000,000)	박광선(2,000,000)	박영자(1,000,000)	양영숙(1,000,000)	권지영(1,000,000)	이호은(1,000,000)
김영국(220,000완납)							

●십일조●

구현주(400,000)	김효숙(100,000)	김종덕(80,000)	남승범(400,000)	박갑진(125,000)	박선민(130,000)	박용범(180,000)	박용범(280,000)
배윤경(130,000)	변영미(200,000)	서재기(100,000)	심윤화(260,000)	이상일(300,000)	임종국(500,000)	정소녀(150,000)	정은정(500,000)
최영자(130,000)	최은희(200,000)						

●감사헌금●

강금숙(10,000)	강신영(200,000)	고선하(30,000)	구남진(200,000)	구민정(20,000)	구숙희(400,000)	권정옥(200,000)	김계숙(250,000)
강덕용(100,000)	김동일(200,000)	김명식(50,000)	김병식(400,000)	김보영(100,000)	김선민(200,000)	김선영(200,000)	김성호(100,000)
김순금(80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예중(200,000)	김와숙(100,000)	김현권(100,000)	김현순(30,000)	김혜은(20,000)
김혜정(20,000)	김효숙(150,000)	김종덕(400,000)	남승범(50,000)	노은순(사마들)(287,357)	류병환(100,000)	문병숙(20,000)	박경애(100,000)
박금숙(100,000)	박문숙(250,000)	박봉희(100,000)	박선영(박진숙)(20,000)	박성희(200,000)	박정미(400,000)	박지현(150,000)	방윤순(50,000)
배윤경(500,000)	백인미(10,000)	백현미(20,000)	변영미(500,000)	서강일(50,000)	서미순(400,000)	서예지(200,000)	성혜숙(200,000)
소정희(500,000)	손은선(200,000)	송영수(190,000)	신소희(100,000)	신인환(300,000)	신현옥(200,000)	심태영(50,000)	양정임(50,000)
연영희(10,000)	영애석(10,000)	오분순(240,000)	오임순(20,000)	유재미(100,000)	윤연구(10,000,000)	이경숙(300,000)	이규만(300,000)
이상길(20,000)	이상숙(40,000)	이상일(450,000)	이정복(10,000)	이영광(10,000)	이은주(10,000)	이혜숙(370,000)	이희순(37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승철(100,000)	임승환(5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500,000)	전대진(50,000)	전선희(30,000)
장숙(50,000)	정미연(40,000)	정재훈(30,000)	정종순(300,000)	조숙(150,000)	조옥선(40,000)	조종호(50,000)	조종혜(1,018,020)
최영자(30,000)	최영희(10,000)	최혜원(1250,000)	추종식(350,000)	한창식(500,000)	한혜경(10,000)	홍영록(50,000)	황보순(100,000)
황우진(90,000)							

●성탄감사헌금●

강신영(50,000)	김진영(100,000)	박선민(50,000)	박성희(100,000)	서미순(100,000)	심윤화(30,000)	오분순(30,000)	이상일(100,000)
이태희(50,000)	이해옥(100,000)	이황희(50,000)	이화진(50,000)	최영자(50,000)	황우진(20,000)		

●송구영신헌금●

강원봉(200,000)	김효숙(50,000)	박부흥(50,000)	배윤경(100,000)	서미순(100,000)	손은선(100,000)	심윤화(20,000)	이주희(50,000)
--------------	-------------	-------------	--------------	--------------	--------------	-------------	-------------

●기관후원헌금●

가락재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왕송약국(1500,000)	(주)트라이엔비(100,000)	투월브(230,000)
----------------	---------------	-----------------	----------------	-----------------	----------------	-------------------	--------------

●정기후원금(CMS)●

공은영(30,000)	권태준(1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순금(100,000)	김영애(50,000)	김영신(30,000)	김원도(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인경(50,000)	김인숙(10,000)	김조(3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효진(100,000)	나일주(100,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희(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연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성민숙(250,000)	소한태(10,000)	송연숙(50,000)	송필재(30,000)	양은정(100,000)
오분순(20,000)	오선희(50,000)	유미영(10,000)	윤성복(50,000)	윤인초(1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규례(1,00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선숙(10,000)	장승아(10,000)	장우형(50,000)	장경희(30,000)	장미선(50,000)
장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은경(20,000)	정일금(10,000)	정현영(50,000)	조남남(2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하혜원(10,000)	허경순(50,000)	현상원(50,000)	현상원(50,000)	현상원(50,000)	홍금주(10,000)
홍지(50,000)	황준희(20,000)						

청평힐링센터 2025년 12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8,128,83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913,929
천사헌금	10,000,000	자동차 합부금 및 보험료	2,413,008
십일조	4,165,000	식자재구입비	9,211,020
감사헌금	25,910,377	전기요금	5,144,100
CMS헌금	3,765,000	가스요금	1,071,600
성탄감사헌금	880,000	화재보험료	1,470,750
		안전관리비	539,500
		우편발송비	267,440
		홈페이지/ CMS사용료	66,000
		집기구입비	429,827
		급여인건비	16,439,550
		수리비	1,326,000
금월 수입 합계	52,849,207	지출 총액	39,292,724
전월 이월금	1,124,756		
총 수입 합계	53,973,963	금월 잔액	14,681,239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강정운(4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5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전두희(30,000)
 2월: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연자(500,000) 도문식(300,000) 문화자(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영자(30,000)
 3월: 감사헌금(158,512)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명우(1,000,000) 김점숙(50,000) 도문식(300,000) 도주은(1,000,000) 이재희(2,0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영자(30,000) 최영자(200,000) 확장소망헌금(5,000,000)
 4월: 강정운(20,000) 권경희(1,000,000) 김병식(100,000) 김예송(1,000,000) 도문식(300,000) 이재희(2,5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5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소재길(100,000) 이정화(1,0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최정미(100,000)
 6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예수은혜(2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50,000)
 7월: 강정운(20,000) 김계숙(5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박효정(1,0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1,000,000) 전두희(30,000) 최정미(200,000)
 8월: 박상준(100,000)
 9월: 강정운(2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최정미(150,000) 한치용(30,000) 한치용(200,000)
 10월: 김영래(1,00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11월: 김병식(1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300,000) 전두희(50,000) 주혜선(1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50,000)
 12월: 김병식(100,000) 김종덕(100,000) 사랑교회(101,910) 신은철(2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한재(320,000)
 * 12월말 현재 총, 179,450,42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5년 12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김행심(10,000) 성찬영(300,000) 성찬영(300,000) 이만석(10,000) 이순미(50,000) 장향자(30,000) 장향자(30,000) (주)트라이엔비(1,000,000) 한종석(200,000)

2025년 12월 소나무헌금 지출 : 조O(241,200) 신O환(129,280) 이O옥(778,400) 신O환(209,28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7195-3045 이성일 목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지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2월 가입자 명단 (9명)

609 이금순 610 선진숙 611 배정원 612 박경선 613 박광선 614 박영자 615 양영숙 616 권지영 617 이호은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희	2 최민지	3 최민지	4 유재민	5 이영희	6 김수영	7 김수영	8 이영희	9 조주영	10 김수영	11 박정민	12 정동원	13 조현민	14 정영민
15 이영희	16 박정민	17 김수영	18 김수영	19 김수영	20 김수영	21 김수영	22 김수영	23 김수영	24 김수영	25 김수영	26 김수영	27 김수영	28 김수영
29 김수영	30 김수영	31 김수영	32 김수영	33 김수영	34 김수영	35 김수영	36 김수영	37 김수영	38 김수영	39 김수영	40 김수영	41 김수영	42 김수영
43 김수영	44 김수영	45 김수영	46 김수영	47 김수영	48 김수영	49 김수영	50 김수영	51 김수영	52 김수영	53 김수영	54 김수영	55 김수영	56 김수영
57 김수영	58 김수영	59 김수영	60 김수영	61 김수영	62 김수영	63 김수영	64 김수영	65 김수영	66 김수영	67 김수영	68 김수영	69 김수영	70 김수영
71 김수영	72 김수영	73 김수영	74 김수영	75 김수영	76 김수영	77 김수영	78 김수영	79 김수영	80 김수영	81 김수영	82 김수영	83 김수영	84 김수영
85 김수영	86 김수영	87 김수영	88 김수영	89 김수영	90 김수영	91 김수영	92 김수영	93 김수영	94 김수영	95 김수영	96 김수영	97 김수영	98 김수영
99 김수영	100 김수영	101 김수영	102 김수영	103 김수영	104 김수영	105 김수영	106 김수영	107 김수영	108 김수영	109 김수영	110 김수영	111 김수영	112 김수영
113 김수영	114 김수영	115 김수영	116 김수영	117 김수영	118 김수영	119 김수영	120 김수영	121 김수영	122 김수영	123 김수영	124 김수영	125 김수영	126 김수영
127 김수영	128 김수영	129 김수영	130 김수영	131 김수영	132 김수영	133 김수영	134 김수영	135 김수영	136 김수영	137 김수영	138 김수영	139 김수영	140 김수영
141 김수영	142 김수영	143 김수영	144 김수영	145 김수영	146 김수영	147 김수영	148 김수영	149 김수영	150 김수영	151 김수영	152 김수영	153 김수영	154 김수영
155 김수영	156 김수영	157 김수영	158 김수영	159 김수영	160 김수영	161 김수영	162 김수영	163 김수영	164 김수영	165 김수영	166 김수영	167 김수영	168 김수영
169 김수영	170 김수영	171 김수영	172 김수영	173 김수영	174 김수영	175 김수영	176 김수영	177 김수영	178 김수영	179 김수영	180 김수영	181 김수영	182 김수영
183 김수영	184 김수영	185 김수영	186 김수영	187 김수영	188 김수영	189 김수영	190 김수영	191 김수영	192 김수영	193 김수영	194 김수영	195 김수영	196 김수영
197 김수영	198 김수영	199 김수영	200 김수영	201 김수영	202 김수영	203 김수영	204 김수영	205 김수영	206 김수영	207 김수영	208 김수영	209 김수영	210 김수영
211 김수영	212 김수영	213 김수영	214 김수영	215 김수영	216 김수영	217 김수영	218 김수영	219 김수영	220 김수영	221 김수영	222 김수영	223 김수영	224 김수영
225 김수영	226 김수영	227 김수영	228 김수영	229 김수영	230 김수영	231 김수영	232 김수영	233 김수영	234 김수영	235 김수영	236 김수영	237 김수영	238 김수영
239 김수영	240 김수영	241 김수영	242 김수영	243 김수영	244 김수영	245 김수영	246 김수영	247 김수영	248 김수영	249 김수영	250 김수영	251 김수영	252 김수영
253 김수영	254 김수영	255 김수영	256 김수영	257 김수영	258 김수영	259 김수영	260 김수영	261 김수영	262 김수영	263 김수영	264 김수영	265 김수영	266 김수영
267 김수영	268 김수영	269 김수영	270 김수영	271 김수영	272 김수영	273 김수영	274 김수영	275 김수영	276 김수영	277 김수영	278 김수영	279 김수영	280 김수영
281 김수영	282 김수영	283 김수영	284 김수영	285 김수영	286 김수영	287 김수영	288 김수영	289 김수영	290 김수영	291 김수영	292 김수영	293 김수영	294 김수영
295 김수영	296 김수영	297 김수영	298 김수영	299 김수영	300 김수영	301 김수영	302 김수영	303 김수영	304 김수영	305 김수영	306 김수영	307 김수영	308 김수영
309 김수영	310 김수영	311 김수영	312 김수영	313 김수영	314 김수영	315 김수영	316 김수영	317 김수영	318 김수영	319 김수영	320 김수영	321 김수영	322 김수영
323 김수영	324 김수영	325 김수영	326 김수영	327 김수영	328 김수영	329 김수영	330 김수영	331 김수영	332 김수영	333 김수영	334 김수영	335 김수영	336 김수영
337 김수영	338 김수영	339 김수영	340 김수영	341 김수영	342 김수영	343 김수영	344 김수영	345 김수영	346 김수영	347 김수영	348 김수영	349 김수영	350 김수영
351 김수영	352 김수영	353 김수영	354 김수영	355 김수영	356 김수영	357 김수영	358 김수영	359 김수영	360 김수영	361 김수영	362 김수영	363 김수영	364 김수영
365 김수영	366 김수영	367 김수영	368 김수영	369 김수영	370 김수영	371 김수영	372 김수영	373 김수영	374 김수영	375 김수영	376 김수영	377 김수영	378 김수영
379 김수영	380 김수영	381 김수영	382 김수영	383 김수영	384 김수영	385 김수영	386 김수영	387 김수영	388 김수영	389 김수영	390 김수영	391 김수영	392 김수영
393 김수영	394 김수영	395 김수영	396 김수영	397 김수영	398 김수영	399 김수영	400 김수영	401 김수영	402 김수영	403 김수영	404 김수영	405 김수영	406 김수영
407 김수영	408 김수영	409 김수영	410 김수영	411 김수영	412 김수영	413 김수영	414 김수영	415 김수영	416 김수영	417 김수영	418 김수영	419 김수영	420 김수영
421 김수영	422 김수영	423 김수영	424 김수영	425 김수영	426 김수영	427 김수영	428 김수영	429 김수영	430 김수영	431 김수영	432 김수영	433 김수영	434 김수영
435 김수영	436 김수영	437 김수영	438 김수영	439 김수영	440 김수영	441 김수영	442 김수영	443 김수영	444 김수영	445 김수영	446 김수영	447 김수영	448 김수영
449 김수영	450 김수영	451 김수영	452 김수영	453 김수영	454 김수영	455 김수영	456 김수영	457 김수영	458 김수영	459 김수영	460 김수영	461 김수영	462 김수영
463 김수영	464 김수영	465 김수영	466 김수영	467 김수영	468 김수영	469 김수영	470 김수영	471 김수영	472 김수영	473 김수영	474 김수영	475 김수영	476 김수영
477 김수영	478 김수영	479 김수영	480 김수영	481 김수영	482 김수영	483 김수영	484 김수영	485 김수영	486 김수영	487 김수영	488 김수영	489 김수영	490 김수영
491 김수영	492 김수영	493 김수영	494 김수영	495 김수영	496 김수영	497 김수영	498 김수영	499 김수영	500 김수영	501 김수영	502 김수영	503 김수영	504 김수영
505 김수영	506 김수영	507 김수영	508 김수영	509 김수영	510 김수영	511 김수영	512 김수영	513 김수영	514 김수영	515 김수영	516 김수영	517 김수영	518 김수영
519 김수영	520 김수영	521 김수영	522 김수영	523 김수영	524 김수영	525 김수영	526 김수영	527 김수영	528 김수영	529 김수영	530 김수영	531 김수영	532 김수영
533 김수영	534 김수영	535 김수영	536 김수영	537 김수영	538 김수영	539 김수영	540 김수영	541 김수영	542 김수영	543 김수영	544 김수영	545 김수영	546 김수영
547 김수영	548 김수영	549 김수영	550 김수영	551 김수영	552 김수영	553 김수영	554 김수영	555 김수영	556 김수영	557 김수영	558 김수영	559 김수영	560 김수영
561 김수영	562 김수영	563 김수영	564 김수영	565 김수영	566 김수영	567 김수영	568 김수영	569 김수영	570 김수영	571 김수영	572 김수영	573 김수영	574 김수영
575 김수영	576 김수영	577 김수영	578 김수영	579 김수영	580 김수영	581 김수영	582 김수영	583 김수영	584 김수영	585 김수영	586 김수영	587 김수영	588 김수영
589 김수영	590 김수영	591 김수영	592 김수영	593 김수영	594 김수영	595 김수영	596 김수영	597 김수영	598 김수영	599 김수영	600 김수영	601 김수영	602 김수영
603 김수영	604 김수영	605 김수영	606 김수영	607 김수영	608 김수영	609 김수영	610 김수영	611 김수영	612 김수영	613 김수영	614 김수영	615 김수영	616 김수영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와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싸앗현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섬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자 처럼 로렐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전○희 (5월 이용)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뜨거운 예배 이후 눈길 속에서 묵묵히 움직이시며 제설작업을 하신 목사님과 환우분들의 배려와 섬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끼 맛있고 영양만점 식사, 오전 오후 예배와 기도,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 시간 하루하루가 참 감사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앞으로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구와 실내환경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덕분에 평안히 지냈습니다.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지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사역 이야기

나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

노숙인 급식을 위한 쌀을 사기 위해 쿠팡을 뒤적였습니다. 물가가 참 많이도 올랐습니다. 가성비 좋은 순위 1위의 쌀을 결제했습니다. 싸구려 최저가 쌀이 아니라, 품질은 괜찮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쌀입니다. 저 역시 집에서 이 쌀을 사 먹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노숙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 강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노숙인 사역 단체 중 예배를 드리는 곳은 소중한사람들이 유일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소중한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도움 없이 사회봉사기관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전적으로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늘 고안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이고 의로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집이 없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밥 한끼 먹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만택입니다. 연말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쌀을 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후원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려 했지만, 서울역 소중한사람들까지는 배달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업체를 알아보고 어떤 쌀을 원하시는지 품목을 정해서 가격 협상 후 알려주세요."

이곳, 저곳 전화를 해보니 가까운 서대문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쌀 품목도 정할 생각도 못한 채 후원자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대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쌀은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너무 기뻐서 아직 정하지도 못했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후원자분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알아서 보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일 처리가 이 모양이라 참 부끄러웠습니다.

곧 철원 최상급 쌀이 보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원 현지에서 농부가 직송으로 보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쌀을 보내는 농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 어떤 고급 한식 음식점이신가요?"

"저희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예? 아니, 이 쌀을 노숙인들에게 주신다고요? 이런 음식점에서도 최상급 식당에서나 쓰는 쌀인데, 이걸 노숙인들에게 먹이겠다는 생

각을 대해 누가 한 겁니까?"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으신가 봅니다."

다음 날 새벽, 484kg의 철원 쌀이 소중한사람들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이 제가 사던 쌀에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저 역시 이런 쌀은 사 보지도, 먹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성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말을 맞아 당신의 아들들이 노숙인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이렇게나 다르군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제 안에 있는 가짜 의로움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원 쌀과 쿠팡에서 산 쌀을 반반 섞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산 쌀도 좋은 쌀이니까요. 어쨌든 제 집에서 먹는 쌀이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려움들을 꾸짖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선하심을 다시 보여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틀 후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현성결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쌀을 전달하러 소중한사람들 주차장에 이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 있던 중이라, 소중한사람들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 중이시던 송연호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쌀을 주러 오셨는데 받아 주세요, 선교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 얼른 받을게요."

다음 날 아침, 1층 상담실 벽을 따라 1,000kg 분량의 쌀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너, 이래도 섞을 거야? 그냥 먹이면 안 되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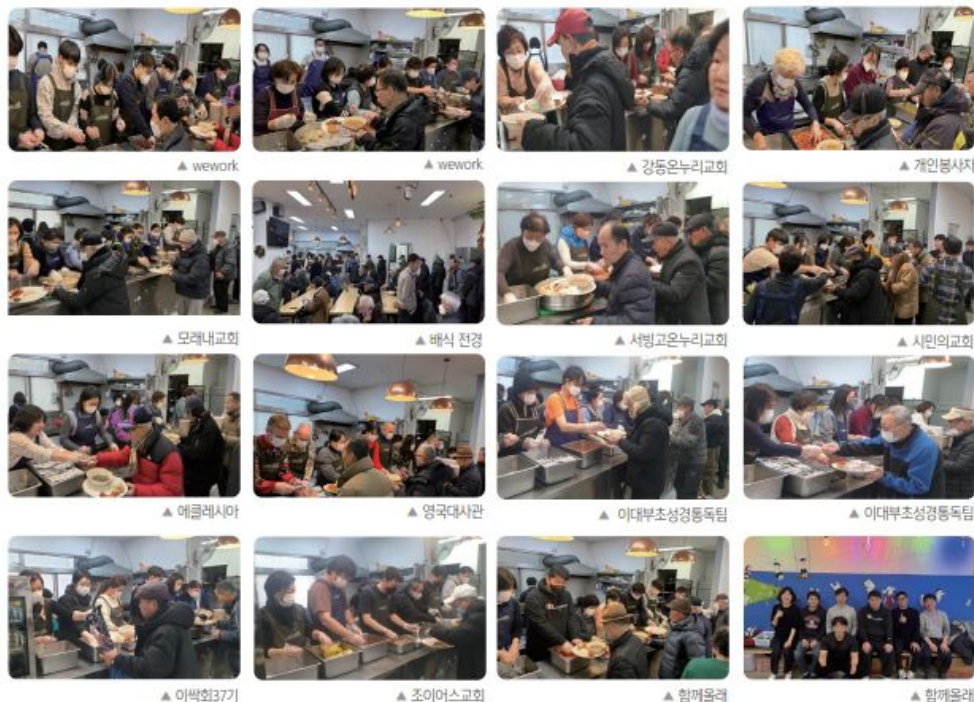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 곁에는, 그녀를 책망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쁜 것을 낭비하느냐?"고 외치던 그들의 말은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짜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일하게 하소서.

글 / 소중한사람들 사무처

소중한사람들 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1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대부초등교 학부모성경동독팀(2,9,16,23,30일), 영국대사관(5일), 시민의교회(6일), wework(8,18일), 조이어스교회(9일), 에클레시아(13일), 이악회37기(15일), 서방고은누리교회(16일), 함께올래(20일), 강동은누리교회(26일), 모래내교회(27일)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강하순, 권경희, 권미조, 김영옥, 박대근, 박봉희, 박진희, 송경옥, 손수정,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향자, 임윤연, 전두희, 조희진, 최경희, 최규연,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창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승훈,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상용, 주일 이성일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년 7개월 동안 목요예배 찬양인도로 봉사해 주신 이은수 전도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4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90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2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상 11-15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역,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2.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파,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신형진, 최유진, 김정진, 정은영, 황우진, 이해옥, 배윤경, 김흥덕, 김순금, 임종국, 신인환, 이희진, 추종석, 구숙희, 김효숙, 박성희, 오분순, 성인숙, 송영수, 강신영, 김동훈, 김현권, 박정미, 박지현, 조숙, 서미숙, 김계숙, 정종순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정영희, 김하야, 이순조, 김지현,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이병설,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 근육수축증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4935-2445<문자로>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과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 16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료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21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신 청령힐링센터, 시민의교회, 에클레시아, 홍은영, 신정아님
-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을 나눔을 준비해주신 개인 봉사자

모두 감사합니다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라벨작업 지원



▲ 청령힐링센터이창우 선한목자병원 특송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최의예배찬양단도



▲ 시민의교회 특송



▲ 에클레시아 특송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무료진료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소식지제작지원



▲ 소중한찬양단 금요예배 찬양단도



▲ 홍은영 신정아 선한목자병원 피아노연주



▲ 홍은영 신정아 성탄절을 피아노연주



▲ 노아 후원물 매달 나눔



▲ 노아 후원물 매달 나눔2

후원물품

-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영옥님
 - * 음식/부식을 준비해 오신 에클레시아, 조이어스교회, (주)노아, 이삭희37기, 강동은누리교회
 - * 쌀을 보내주신 (주)만덕, 아현성결교회, 푸드뱅크, KBS신우회, 사랑의쌀나눔기운동
 - *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신 (주)노아 * 손만두를 후원하신 (주)노아 * 겨울 패딩을 후원하신 (주)노아
 - * 방한복을 가져와 주신 조이어스교회 * 마스크, 장갑을 후원하신 고운덴탈
 - * 과일을 후원해주신 이소영, 최미경, 무명, 고정일, 황귀용, 정은영님, 성은교회, 종림교회
 - * 겨울 구두백을 준비하신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빵을 후원해주신 안요셉님 * 핫팩을 후원하신 조호연님 * 배추를 후원하신 정연아님
- 병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1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2/1	김영옥	커피	6박스	12/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1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2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3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4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5	(주)노아	포도	40박스	12/6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5	영국대사관	다이어리	10개	12/6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사부자
12/5	고운덴탈	미스크 정돈주지	9박스	12/6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5	푸드뱅크	푸드뱅크	2개	12/6	비치	소중헌사랑교회 창립기념식
12/5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7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8	정연아	배추	30포기	12/9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8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10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9	조이어스교회	치킨, 배추나	100인분	12/9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0	KBS신우회	쌀	1포	12/1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0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1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1	(주)노아	겨울패딩	100벌	12/25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1	이소영	파프리카	7박스	12/13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2	최미경	장갑	2박스	12/13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2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14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13	에클레시아	병 음료수	9박스	12/13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5	이삭희37기	고기	100인분	12/15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5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16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6	이대부초성경동독팀	겨울용품 구두백	2박스	12/16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7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18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8	푸드뱅크	김치	26박스	12/19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9	(주)만덕	쌀	48kg	12/20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19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2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20	사랑의쌀나눔기운동	쌀	10kg	12/2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2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23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4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25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4	무명	장갑	3박스	12/25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5	안요셉	빵	4박스	12/25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6	조이어스교회	방한복	36세트	1/4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6	강동은누리교회	떡 음료수	150개	12/26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6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28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28	아현성결교회	쌀	1000kg	12/29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29	푸드뱅크	햄/ 부식	9박스	12/30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30	(주)노아	돼지고기	10박스	12/3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30	(주)노아	손만두	400개	1/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31	정호연	핫팩	120개	1/1	나눔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12/31	고정일	글	1박스	1/1	급식	소중헌사랑교회 노숙인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러시아, 중국, 북한 선교편지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김요엘 선교사님은 폐 수술 등 개인 건강 사정 등으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사람들은 기다니엘 선교사님과 연결하여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니엘 선교사님은 북한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중국인, 조선족, 탈북민, 북한유학생을 위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북한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인과 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 중인 탈북민, 북한유학생을 위한 사역 중입니다. 전도 받은 중국인, 러시아인들을 통한 북한 현지 선교도 기도 중입니다.

12월 선교편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1. 선생님과 만남속과 반 친구들

전에 NK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지금도 C도시에 가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과 10월 초 만남은 선생님의 감기로 취소되었고, 다시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지각 있는 보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C도시를 방문할 안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첫 친구 보스와 나샤가 2주의 휴가를 얻어 돌아왔고, 산할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에 넘치게 응답하셨습니다. 2주간 이들과 5번의 만남을 갖게 해 주셨고, 보스의 차를 타고 하룻길 C도시로 함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 도시는 보스와 나샤 부부가 알했던 곳이기도 하여서 오가는 길 최고 가이드의 설명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보스가 일주에 한 번 온라인 성경암기 만남을 갖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고려인 아내 나샤에게 한국어 배워 "맛있어, 맛있소"를 알고 있는 보스가 어느 날 식당 옆 테이블서 NK사람 둘이 마라탕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보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들에게 "맛있소?"라고 묻자 그들 둘이 너무 놀라더라고 전해줍니다. 또 나샤가 한 번은 식사기도를 하였는데 얼마나 듣기에 감격스러웠는지, 2년 전에 그레이스가 어렵게 섰던 러시아어 성경을 나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내년 3월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면 보스에게 성경을 선물 할 수 있길,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로 자리만 좋겠다고 주님께 바랍니다.

반 친구들 11명과 관계는 우리 집에 오면 모두 서서 식사 감사기도를 함께 합니다. 어느 날은 다니엘이 영접 기도문을 참고해서 전도용 식사기도를 했습니다. 오는 24일 그레이스가 초대에 응답한 9명을 대상으로 다시 복음 전파를 준비합니다. 다니엘은 부재중이라 그레이스 혼자지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구원의 주님을 만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지타와 뿌리박을 함께 주일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만나면 둘이서 악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주안에서 사랑과 신뢰속에 자라도록 중보해 주시고, 다니엘의 고국행 때에

도 주일 오후 온라인 모임을 계속 할 텐데 인터넷이 안정적이고, 또 언어 장애 없이 전리가 잘 나뉘지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지타가 열왕기하 5장을 읽고 나날 때, 왜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엘리사에게 관해 말했을까요? 라고 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뿌리박은 조국 배닝에 쿠데타가 났던 시간에 꿈을 통해 힘든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특수부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특수부대를 움직여 일으킨 이번 쿠데타 발발시간에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너무 추위하는 그들에게 다니엘은 그의 두 긴 외투를 주었습니다. 가지치기- 중국인 안드레이는 고향집으로 돌아갔고, 제이슨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산생님과 만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그의 두 차례의 계획을 그레이스에게 나눴을 때 그레이스의 권면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아 "너와 친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초대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에 이르며, 회심과 함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다국적 동역자들에 대한 가능성

"NK 동포들을 접촉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 동역자들을 얻게 하시고 Inland NK사역의 길이 열리고, 나이란 장군과 가생 라합과 같은 NK인들을 만나게 하옵시며, NK를 영육간에 축복할 사업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2월 초에 East Asia 지역의 전문인 리더십 책임자와 온라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NK를 섬길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NK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지인 선교사님께서 소개하여 L형제와 D형제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다국인 선교의 가능성과 NK까지의 비전"을 첫 만남이지만 나누고, 또 고독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3."언"형제를 위해 중보 해 주십시오. 돌아오면 간부가 된다고 이탈리아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언형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벨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형제에게 위임하여 월요일 영어 성경암기를 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두 자매도 신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정교회 목양자이신데 이제 세례 받을 준비중입니다.

4. 러시아 국적 취득 과정 중에 있는 베드로가 "지난 11월부터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남성은 반드시 1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에 부딪혔습니다. 믿음으로 헤쳐가게, 또 한국 행 대기중인 두 NK인들 함께 만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 다니엘과 그레이스 드림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3절) 말씀에 반응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될 곳이 없는 노숙인들을 입히고 먹이는 사역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묵묵히 2026년 사역을 이어갑니다.

후원품을 전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노아에서 후원해 주신 겨울 패딩을 성탄의 날에 나누었습니다. 얼른 입어보며 너무 따뜻하다고 웃으시는 노숙인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가 몇 개 없으셨지만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는 참 아름답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신 만두를 새해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농약으로 농사지어서 굶이 못생겼다고 편지를 써주신 제주도 꿀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품의 사연을 다 쓰기에 지면이 부족합니다.

성탄의 날이 있는 12월은 참으로 풍성한 달이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배부르며 함께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할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가장 많은 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정은영, 황우진, 이혜옥, 배윤경, 김홍덕, 김소금, 임종국, 신인환, 이희진, 추종석, 구석희, 김효숙, 박성희, 오분순, 성인숙, 송영수, 강신영, 김동일, 김현권, 박정미, 박지현, 조소, 서미숙, 김계숙, 정종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이병설,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5년 12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5년 12월 01일 ~ 12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강덕희(350,000)	강성희(200,000)	강원봉(400,000)	강인숙(300,000)	강지현(100,000)	고우원(200,000)
곽효정(100,000)	구명신(100,000)	기정아(63,000)	기정아(30,000)	김갑희(280,000)	김미정(300,000)
김연진(1,000,000)	김연진(1,000,000)	김영림(100,000)	김영배(500,000)	김영진(50,000)	김영진, 손미나(2,000,000)
김용수, 송연숙(350,000)	김종영(200,000)	나은선(300,000)	(취)노아(1,000,000)	도문식(300,000)	문영숙(200,000)
박민희(110,000)	박수현(200,000)	박유미(1,000,000)	박혜수(500,000)	사시경(3,000,000)	상찬영(700,000)
산진경(300,000)	신현정(250,000)	신현정(250,000)	신현진(500,000)	신혜영(250,000)	십일조(10,000)
심일조(12(370,000))	안선빈(300,000)	안유진(310,000)	엄춘관(500,000)	유광현(300,000)	유예스더(220,000)
유영재(350,000)	윤원석(200,000)	이교은(480,000)	이성웅, 이한나(550,000)	이영관(31,000)	이영관(30,000)
이은주(700,000)	이황희(20,000) 임	나리(650,000)	장경희(300,000)	정경희(220,000)	천은미(200,000)
최영화(100,000)	최진옥(500,000)	한은숙(400,000)	헌금(1,000,000)	황선모(300,000)	

●성탄감사헌금●

강덕희(50,000)	강원봉(200,000)	박대수(5,000)	박봉희(100,000)	서성한(10,000)	송기승(20,000)
송연숙(200,000)	심홍보(10,000)	이주희(50,000)	이천우(20,000)	이철호(5,000)	이학재(30,000)
이혜옥(20,000)	장종숙(50,000)	정경희(30,000)	정종순(30,000)	최영화(100,000)	황우진(10,000)

●신년감사헌금●

김영록(100,000)	정종대(200,000)
--------------	--------------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40,000)	강성희(150,000)	강원봉(140,000)	강운옥(20,000)	강지현(30,000)	곽혜란(50,000)
곽효정(100,000)	권정연(100,000)	금지후원(10,000)	기정아(30,000)	김갑희(100,000)	김경숙(20,000)
김영식(10,000)	김남이(50,000)	김동환(1,000,000)	김명옥(70,000)	김미선(50,000)	김미선(50,000)
김미영(20,000)	김미정(50,000)	김병식(20,000)	김상근(42,000)	김성희(30,000)	김수진(50,000)
김순숙(100,000)	김영선(10,000)	김용수, 송연숙(200,000)	김이영(10,000)	김인수(40,000)	김정훈(10,000)
김지미(20,000)	김태세(30,000)	김태희(50,000)	김하영(10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미정(100,000)	나종수(40,000)	노원균(30,000)	마태복음5장10-11(50,000)	무명(509,000)	만해경(1,945,769)
박동준(20,000)	박영재(55,000)	박봉선(50,000)	박선인(4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인혜(40,000)	박정애(30,000)	박정환(10,000)	박지원(10,000)	박진희(100,000)	박철규(100,000)
박종식(1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서효숙(200,000)	성명숙, 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송기승(200,000)	송수경(100,000)	신명순(180,000)	신정우(10,000)	신정우(30,000)	신현정(50,000)
심요열(10,000)	심홍보(9,000)	안형옥(100,000)	양복갑(130,000)	오경남(20,000)	오선형(100,000)
오자석(100,000)	유애선(10,000)	유재학(130,000)	유정옥(10,000)	윤화(20,000)	이강혁, 이강현(30,000)
이경희(100,000)	이기행(10,000)	이길성(30,000)	이미말(100,000)	이상웅, 이한나(750,000)	이상혜(5,000)
이승선(50,000)	이연옥(1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100,000)	이인자(300,000)	이재성(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50,000)
이지은(10,000)	이철(100,000)	이태희(40,000)	이향자(50,000)	이현경(60,000)	이현정(30,000)
이형식(10,000)	이황희(30,000)	임윤범(150,000)	이희진(400,000)	장광목, 장자민(50,000)	장관숙(100,000)
장종숙(40,000)	장지호(50,000)	전미희(160,000)	전혜영(20,000)	정경희(50,000)	정봉연(50,000)
장영애(20,000)	정윤(50,000)	정주연(100,000)	정찬락(10,000)	정태연(20,000)	조미영(100,000)
조성애(50,000)	조윤남(10,000)	조진영(50,000)	주혜선(10,000)	최경선(120,000)	최미현(50,000)
최성은(10,000)	최영화(30,000)	최영희(10,000)	최진복(20,000)	최진자(200,000)	하태윤(3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터(100,000)	허동욱(3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50,000)

●교회 감사헌금●

(가)가)별명교회(100,000) (가)가)선한목자교회(100,000) (가)가)안양감리교회(200,000) (가)가)식도성결교회(50,000) (가)가)식도성결교회(100,000)
 (가)가)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기쁜우리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양의문교회(50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은평교회(20,000)
 은혜의교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Blackstone(4,324,682)	Cisco(7,055)	IBM(28,220)	갓피플웨딩(50,000)	(취)계영산업(50,000)	로그스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마라나타(100,000)	사람의센터(50,000)	(취)서일아일랜드(5,000,000)	연세대학교수학원(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조지아성경동독팀(680,782)	(취)컨퍼런스(100,000)	(취)창세예스엔티(50,000)	(취)한국경제신문(600,000)		

●미안마고아 선교헌금●

(취)GBP(50,000)	광삼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아성자(40,000)	아성자(40,000)	이름옥(40,000)	이름옥(40,000)	장영애(40,000)	정현주(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최	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서보람(100,000)	윤해경(40,000)	조춘식(40,000)
--------------	-------------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해경(40,000)
-------------	-------------

●북한고아 선교헌금●

(취)GBP(50,000)	강알화(40,000)	강현미(40,000)	고남균(5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석영란(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수미(5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김영미(1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취)연태이브(100,000)	이향자(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자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강연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	-------------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김대준(송향)(40,000)	김상진(송향)(40,000)	김옥례(40,000)	김옥례(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송향(40,000)
윤해경(40,000)	윤해원(2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장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한국의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의아(5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김인수(40,000)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영미(35,000)
박종래, 최임선(20,000)	박해진(10,000)	서보연(10,000)	성한영(50,000)
신혜영(250,000)	이숙영(1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하미경(30,000)	한종석(200,000)



2025년 12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GBP(100,000)	강금내(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영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수(10,000)	강화관(10,000)	고경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혜(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만(50,000)
김라함(3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미희(20,000)	김민경(30,000)	김번목(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내(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상관(20,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숙(10,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정(8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춘희(50,000)	김태조(10,000)	김한나(5,000)	김행은(10,000)	김향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효진(강필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류효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1(50,000)	무명2(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록(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운(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소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자상(10,000)	박지혜(자은미)(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서기준(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30,000)	신승우(4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정(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록(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윤기숙(5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2025년 12월 01일 ~ 12월 31일까지)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운(50,000)	이병기(10,000)	이복자2(100,000)	이산록(20,000)
이상종(50,000)	이상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희(20,000)
이예원(10,000)	이원경(10,000)	이윤미(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의신(10,000)	이의희(10,000)
이인용(20,000)	이재동(백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제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수(1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소내(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문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준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숙(12,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숙(40,000)	채송화(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광의(1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가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시원(30,000)	허인애(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윤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현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 팩스 031-582-0199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를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 목적지정 안함 ☐ 노숙인 사업 ☐ 노숙인 교회 ☐ 암 환우 힐링센터 ☒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 미안마 ☐ 아이티 ☐ 멕시코 ☐ 중국 ☐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 일시후원 ☐ 정기후원
	후원방법	☐ 자동후원(CMS) ☐ 직접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 6일 ☐ 16일 ☐ 26일	통장구분	☐ 개인통장 ☐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

2026년 1월 (제 253호)

소중한사람들

길

나는 매일 낯선 길에 선다.
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는 그 길에서면
어당초 내 발에 맞는 길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일러준다.

높은 길을 깎아내고
낮은 길을 움푹 돋워 평탄케 한다.

누군가 나와 함께 갈 사감을 찾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그 길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

놀라운 것은
수풍이 우거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걸기만 해도 길이 생긴다.

오늘 내가 험잡게 걸어난 길은
내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길이 되나니...
힘줄을 수룩
땀을 흘릴수록
나에게 기쁨과 노래가 된다.

나는 매일 그렇게
낯선 새 길에 선다.

시/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